

“젊은이들이여 제3 세계로 눈 돌려라”

코이카 파견 10년만에 화순으로 귀농 허동운 씨

“코이카 파견 단원이 1만명을 넘었지만 광주·전남에서 파견됐던 단원은 아직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한 기회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동운(40·화순군)씨는 2001년부터 2년간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단원으로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7월까지 10년간 활동했다. 그는 코이카 단원으로 파견된 단원들이 1만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축하하면서도 광주·전남에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코이카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허씨는 코이카에 파견된 단원들의 70%가량이 수도권 출신이라고 했다. 광주·전남출신 단원은 10%도 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허씨는 “광주·전남 지역에 해외봉사단원 파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해외활동에 대한 젊

은이들이 관심이 낮은 것 같다”며 “대학생들이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여기에 도전한다면 개인만의 특별한 역량을 쌓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이카는 1990년 네팔·스리랑카·인도네시아·필리핀 등 4개국에 첫 봉사단원 44명을 파견한 이후 지난 5월 76기 35명이 출국하면서 23년만에 파견단원 1만명을 돌파했다. 파견단원들은 일반적인 해외봉사과 달리 의료기술을 전하는 보건분야, 과학기술 등을 알려주는 교육분야, 작물재배나 원예기술을 가르쳐주는 농업분야 등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이끌고 있다.

전남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허씨는 2001년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1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갈리만탄섬에 파견돼 벼농사 기술과 농기계 조작에 관한 기술을 전수했다.

그는 “부모님께서 화순에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경운기를 다뤄왔고 농사와 친숙했는데 이런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기술이라도 개발도상국에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인도네시아어로 ‘갈리’는 ‘강’이고 ‘만탄’은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간 마을은 강이 많고 원숭이가 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한국정부가 200대의 경운기를 인도네시아에 지원했습니다. 경운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친숙한 농기계지만 인도네시아 시골 마을에는 처음 보는 기계로 사람들이 무척 신기해했고 이를 활용해 작물 생산량이 나아지는 걸 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커다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허동운씨를 만났던 갈리만탄 주민들은 그를 오랫동안 잊지 않았다. 2003년 코이카 단원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떠났던 허씨가 2009년



허동운씨가 지난 2011년 2월 아프카니스탄 파르완지역 농촌 교육활동을 하던중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코이카 직원으로 다시 찾았을 때 마을 사람 30여명이 전부 나와 환영파티를 열어주었다고 한다. 그는 “인도네시아 마을을 떠날 때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저를 기억해주면서 환영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돼 저를 반겨

줬던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습니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허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작물재배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화순으로 귀농해서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전남 건설방재국, 시상금 도서구입비로

전남도 건설방재국이 5월 투자 유치 상금으로 받은 400만원을 법국민 책 나눔 운동에 동참하고자 도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기탁했다.

전남도립도서관은 이 기탁금으로 구입한 책을 도내 마을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전남도 건설방재국은 또 상금 150만원으로 방재국내 소회의실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 공무원들의 책임기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건설방재국은 지난해에도 투자유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조대부고 동창회-스카이장례식장 협약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성호·전 보건복지부장관)는 최근 스카이장례식장(대표 박화자)과 장례문화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

- ◆전남대
 - 보직인사 ▲학무본부장 정양희 ▲경영전문대학원장 손기형 ▲융합교육인재원장 정병서 ▲여수캠퍼스 융합교육인재원장 문병일 ▲생활관 부관장 이진호
 - 국가공무원(5급) ▲대학원 김정만 ▲산학협력과장 김재욱 ▲입학과장 이상화 ▲문화사회과학대학 행정실장 이재용
- ◆목포대
 - ▲교육대학원장 유원적(사학과) ▲인문대학장 임춘성(중어중문화과) ▲사회과학대학장 강남진(법학과) ▲경영대학장 조현상(경영학과) ▲평생교육원장(겸무) 평생학습학부장 이형재(일어일문화과) ▲신분방송사 주간 하상복(정치언론홍보학과) ▲공동실현실습관장 박시형(한약자원학과) ▲부속농장장 김휘(한약자원학과)

산업재해에 방공단 김한결씨 시집 펴내 담양공공도서관 ‘한국도서관상’

첫 시집 ‘풀은 부러지지 않는다’(도서출판 예지)를 펴낸 김한결(본명 김한원·사진)씨의 이력이 눈길을 끈다. 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한다.

“홍보 관련 업무를 맡다보니 자연스럽게 ‘글’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대학때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아 습작을 하곤 했는데 이렇게 시집까지 낼 줄은 몰랐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지평문학’을 통해 등단한 것을 비롯, 동 문예지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해설을 쓴 강태환 시인은 “김씨의 시집에 서로 다른 시간대를 품은 시가 많은 게 낫은, 근원법을 통해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사물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의 때문”이라고 말



생각이다. “모든 산업현장의 재해율을 제로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안전사고 없는 세상이 바로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꿈일 테니까요.” 첫 시집을 펴낸 김씨의 시심이 해마다 “숨 고르고 나가겠다”는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다. 그는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틈틈이 메모를 한다. 기록하는 습관보다 좋은 아이디어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산업현장의 재해율을 제로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안전사고 없는 세상이 바로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꿈일 테니까요.” 첫 시집을 펴낸 김씨의 시심이 해마다 “숨 고르고 나가겠다”는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담양공공도서관(관장 권남익·사진)이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5회 한국도서관상’에서 단체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도서관 상은 한국도서관협회가 1969년부터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 1700여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도서관 분야 최고의 상이다.

이번에 수상하는 한국도서관상 단체상은 담양공공도서관 등 19개 기관이 수상했다.

담양공공도서관은 지난 1990년 개관 이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길 위의 인문학, 문학 작가 파견사업, 장애인정보누리터·국제자료실 설치 등



국가기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또 지역사회의 계사업으로 개인 및 기업과의 업무협약 및 (MOU), 배려계층 지원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담양공공도서관 관남익 관장은 “2012년도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우수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한국도서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제갈정섭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신뢰받는 조합으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열린 제21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제갈정섭(58)씨가 당선됐다. 제갈 이사장은 치열한 경쟁 끝에 351표를 득표, 308표에 그친 전관식(72)씨를 42표 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임기 3년간 ▲천일염 20kg 유통 단위 정착 ▲전액 국비 이력제 실시 및 수입소금 불법 유통방지 ▲가격 안정 유지 및 추가 증액 ▲천일염 유통센터 설립 및 품질검사기관 검사권 단일화 ▲염전 시설개선 보조사업 지속 추진 등을 역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갈 이사장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포상금제 실시로 불법 포대갈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방지를 마련하고, 소금 교육기관을 설치해 실제 염전 경험과 실무 등을 조합원들에게 중점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공동모금회-아름다운 컨벤션 공헌 협약 매일유업, 보문고 학생 5명에 장학금



사람의 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와 (주)아름다운 컨벤션(대표 여운환)은 5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서에는 (주)아름다운 컨벤션 자체 수익금 일부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쓰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신 바자회를 통한 성금 모금활동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주)아름다운 컨벤션 여운환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 사랑 실천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



매일유업(주) 광주공장(공장장 임근생)은 5일 제17기 진암 장학재단에서 선정한 보문고등학교(교장 주영근)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진암(普巖)장학재단은 매일유업 김복옥 회장의 호를 따서 만든 장학

광산구청 김재희경제과장 호남대 박사

광주 광산구청 김재희(56)경제과장이 ‘노인복지’와 관련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과장은 최근 호남대학교에서 ‘노인복지관의 집행특성과 사회적 지지자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의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박사학위는 2010년 박사과정에 도전, 3년 만에 얻은 쾌거다. 김 과장은 “노인의 사회통합 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해 노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논문 목적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늦깎이 만학도로 지난 2008년 2월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을 수석 졸업해 눈길을 끌었다. /최철승기자 srchoi@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학측

- ▲서생현(조선대 평생교육원 교강사회 수석부회장)·최경희씨 장남 준오군 박승근·조연자씨 장녀 영신양=16일(토) 오전 11시 40분 수아비스 웨딩컨벤션 2층 크리스탈홀.
- ▲정종영씨 장남 천주군 한용순(순천 법무사)씨 딸 아름양=16일(토) 오후 2시 서울 메모리스웨딩홀 4층, 피로연 8일(금)오후 5시 로얄관광호텔별관웨딩홀 4층(순천시 장천동)
- ▲양종열·배정자씨 이남 시인(화순소방서)군 이승범·김미순씨 삼녀 재나양=16일(토)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아트홀 1층.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 신년하례 및 이사회(회장 정안숙)=8일(금) 오전 11시 30분 무등고시학원 3층 301호(동구 대의동) 010-3609-2523.

- ▲홍덕(홍성)장씨 종친회 정기이사회(회장 장용환)=9일(토) 오전 11시 종친회관(남구 월산5동) 062-523-1519.
- ▲무안박씨 광주종친회 정기총회(회장 박화석)=12일(화) 프라도호텔(백운동) 011-618-6633, 011-612-7074.
- ▲전주씨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이화회 3월월례회의(회장 이승봉)=12일(화) 오후 6시 062-225-5636, 5631.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친환경영농사업단은 고연령, 저학력, 무기능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이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제조제품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전문 영농

- 인오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령고객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모집

- ▲‘마늘 죽염 건강요법’ 주민건강교실=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남구 봉선동 연아빌딩 1층·인산죽염광주지사 062-651-1175~6.
- ▲한국마사지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 ▲사람의 학교 문해 한글과정 지원 봉사(여교사 및 학생=성인한글 초·중·고급반, 중급검정고시반(월·화), 한글,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 9시~12시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173.
-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초·중·고 졸업준비하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차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 ▲스키동호회 실천클럽 회원=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 ▲한미음 장애인지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장구, 징,꽂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약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부음

- ▲박삼석씨 별세 영수·영철·병남·정숙·숙영씨 부친상=발인 7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부향소 062-231-8902.
- ▲김경철씨 별세 미애·혜숙·정신씨 부친상=발인 6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부향소 062-231-8903.
- ▲김의순씨 별세 이경희·정화씨 모친상=발인 6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謹 尙加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故류관용 (남/80세) 子/子: 류인철·류영숙 女/女: 류화진·류영대·류보은·류원·류민·류준 호상: 201호 장지: 광산구 삼계동 선영	故노수덕 (남/83세) 子/子: 조병국·황옥희, 병필/현충지·병조·병돈/김영희 女/女: 조관림 호상: 301호 연락처: 227-4381
故최양금 (남/102세) 子/子: 박정영·김영옥 女/女: 박정애·박복선·이순·명숙 호상: 402호 장지: 순천순광	故박경례 (여/68세) 子/子: 김현호/김진영·현철 女/女: 김희정/김기호 호상: 101호 장지: 영락공원

故김영금 (여/92세)
 子/子: 유복래 女/女: 김중심/신정식 장숙/공상인·인숙/신용우·한숙/송중갑·한숙/김재식·희숙/이현빈·혜숙/박용림
 호상: 401호
 장지: 고묘동 선영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